

# 新羅 皇龍寺 九層塔誌

刹柱本記에 대하여

黃 壽 永

I

신라의 역사를 통하여 황룡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컸다. 신라의 月城東龍宮南에서 七處伽藍墟의 하나로 일컫던 황룡사는 寺觀의 규모나 寺格에서 뿐 아니라 신라의 사상과 예술에 있어서 또한 그러하였다. 그러므로 「寺星張하고 塔塔雁行」하였던 國都에 있어 황룡사는 古新羅眞興王一四年癸酉(553)의 始建에서 고려 高宗때(1229) 蒙古亂의 災禍를 임기까지 무려 약 700年 兩朝에 걸쳐 寺運을 이어왔던 것이다. 신라의 三寶에서 眞興王 玉帶를 除外한다면 이곳 황룡사의 九層塔과 丈六像이 각기 차지하였던 사실만으로서도 그 중대한 의의를 짐작할 만하다. 이곳 황룡사 塔像중에서도 九層塔은 그 으뜸으로서 높이가 帝京을 鎮壓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 建立因緣에서 신라王朝와 國민의 念願이 얽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念願은 곧 三國의 통일과 護國護法의 사상과 직결되고 있었으며 특히 國土統一의 所願은 신라末에 이르러 後三國을 결속한 고려왕조에 계승되었으니 高麗때 이 大塔의 三次의 重成①을 통하여서도 짐작할 수가 있다. 이와 아울러 고려太祖가 開京五層塔②을 세운 그 뜻도 또한 알 수가 있다.

II

이같은 신라의 大皇龍寺는 상기와 같이 蒙古亂에 「塔寺丈六殿宇皆災」

된 이후 다시 복구가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羅·麗 兩朝를 통하여 고심경영하였던 동양의 大塔도 고려 肅宗때의 重成(1096)을 최후로 다시는 重建되지 못하고 그 遺礎만이 丈六台座와 더불어 傳來하였던 것이다. 특히 塔址를 중심으로 그 隣近에는 어느덧 村落이 자리잡았으며 심지어는 이같은 塔址 위에 農家가 자리를 차지하였던 것이다.

이 大塔址는 일찍부터 内外人의 注目을 받았다. 특히 日政期의 이른 바 고적조사③에서 또는 전문학자④의 현지 답사에서 이곳 堂塔址가 논 의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조사는 現狀과 관계문헌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뿐이었다. 그후 1964년에 이르러 이 古蹟으로 보호되어 있는 寺址중에서도 塔址의 民家를 철거함으로써 그 整備를 기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 塔址 中央을 차지하였던 心礎石은 그 사이 확 인되어 오기는 하였으나 상기한 民家의 土塼에 끼어 있어 그 고찰을 어렵게 하였던 것이다.

1964年 드디어 文化財委의 承諾을 얻어 農家一棟이 철거되었던 바 그에 따라서 기왕에 노출되지 않았던 心礎部가 方壇中央에서 뚜렷하게 주목되었으며 이 巨大한 自然石 心礎 위 尖頭의 方形石 또한 塔址 中央에 孤立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같은 善意의 새로운 施策을 곧 뒤따른 것은 그 당시 全國을 橫行하였던 盜掘團이었다. 이들은 慶州 出身으로서 古墳에서 비롯하여 全國에 산재하는 古代石塔이 간직하고 있는 舍利具가 그 표적이었다. 그리하여 드디어 1964年 12月에 이르러 황룡사 목탑지의 心礎안에서 1000年이 넘는 오랜 세월을 전래하였던 舍利具가 이들 不法者의 손에서 약탈됨에 이르렀으며 그 유물은 그 직후 서울로 운반되어서 民間에 매각되었던 것이다. 本人은 이 순간에 관여 하였으며 그에 앞서서는 民家의 철거와 그에 뒤따르던 不吉한 정보에 접하였으며 그후 다시 도굴단이 一網打盡된 직후에 있어서 塔址舍利孔의 조사⑤와 그 유물의 回收를 위하여 苦心한 바 있었다. 이들 一括 유물은 일찍이 한국의 탐파에서 다시 그 類例를 볼 수 없었던 內容物과 종별을 지니고 있어 국립박물관에의 保管, 그후의 국고귀속의 과정을 통하여 이에 注目을 기울리 않았었다. 본인이 작년 9월 국립박물관으

로 옮긴 직후 먼저 이들 유물을 다시 주목하였으며 그 整理를 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일은 짧은 시일에 쉽게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그리하여 먼저 가장 주목하여 왔던 金銅舍利函 三面内外에 雙鉤體로 유각된 塔誌의 刻을 위하여 힘을 모아왔다. 이들 各板은 모두 분리되었으되 또 그들 下端部는 侵蝕되었고 兩面은 두껍게 녹이 덮여서 처음에는 단 몇자도 판독할 수가 없었다. 다행히 原子力研究所의 金裕澤氏에게 의뢰하여 이같은 녹을 除去함으로써 各面内外의 現存하는 全文을 거의 刻할 수가 있었다. 三面外에 이들의 正面은 兩枚의 門扉로서 마감되었는데 이들 前後에는 計 四구의 天王像이 細刻되어 있어 또한 귀중한 당대의 유물임이 밝혀졌다. 먼저 各板内外의 銘文을 연결하면 다음과 같다.

(第一板)

皇龍寺利柱本記侍讀右軍大監兼省公臣朴居勿奉

詳夫皇龍寺九層塔者

善德大王代之所建也昔有善宗郎眞骨貴人也少好殺生放鷹擊雉雉出淚而泣感此發心請出家入道法號慈藏大王即位七年大唐貞觀十二年我國仁平五年戊戌歲隨我使神通入於西國王之十二年癸卯歲欲歸本國頂辭南山圓香禪師禪師謂曰吾以觀心觀公之國皇龍寺建九層窳塔波海東諸國渾汝國慈藏持語而還以聞乃命監君伊干龍樹大匠濟非等率小匠二百人造斯塔焉

鐫字僧聰惠

(第二板)

其十四年歲次乙巳始構建四月

立利柱明年乃畢叩鐵盤已上高七步已下高卅步三尺果合三韓以爲君臣安樂至今賴之歷一百九十暨于文聖王之代既久向東北傾國家恐墜擬將改致衆材三十餘年其未改搆今上即位十一年咸通辛卯歲恨其傾乃命親弟上宰相伊干魏弘爲臣寺主惠興爲開僧及脩監典其人 大統政法和尙大德賢亮大統兼政法和尙大德普緣康州輔重阿干堅其等道俗以其年八月十二日始廢舊造新

鐫字臣小連全

(第三枚)

其中更依無垢淨經置小石塔九十九軀每軀納舍利一枚陀羅尼四種經一卷卷上安舍利一具於鐵盤之上明年七月九層畢功雖然利柱不動上憲柱本舍利如何令臣伊干承旨取壬辰年十一月六日率群僚而往專令舉柱觀之礎臼之中有金銀高座於其上安舍利琉璃瓶其爲物也不可思議唯無年月事由記○廿五日還依舊置又加安舍利一百枚法舍利二種專命記題事由略記始建之源改作之故以示萬劫表後迷矣

咸通十三年歲次壬辰十一月廿五日記  
崇文臺郎兼春宮中事省臣姚克一奉

鐫字助博士臣全

(第三板 外面)  
成典

監脩成塔事守兵部令平章事伊干臣金魏弘

上堂前兵部大監阿干臣金李臣

倉府卿一吉干臣金丹書

赤位大奈麻臣新金賢雄

靑位奈麻臣新金平矜 奈麻臣金宗猷

奈麻臣金歆善 大舍臣金愼行

黃位大舍臣金兢會 大舍臣金勳幸

大舍臣金審卷 大舍臣金公立

道監典

(第二板 外面)

前國統僧惠興

前大統政法和尙大德賢亮前大統政法和尙大德

大統僧談裕 政法和尙僧神解

普門寺上座僧隱田 當寺上座僧允如

僧榮梵 僧良高 僧然訓 僧昕芳

僧溫融

維那僧助筆 僧咸解 僧立宗 僧秀林

俗監典

湏江鎮都護重阿干臣金堅其

執事侍郎阿干臣金八元

(第一板 外面)

內省卿沙干臣金成熙

臨關郡太守沙干臣金昱榮

松岳郡太守大奈麻臣金鎰

當寺大維那

僧香 □ 僧 □ □ 僧元强當寺都維那 □ □ □

感恩寺都維那僧芳另 僧連嵩

維那僧達摩 僧 □ □ 僧賢義 僧良秀

僧教日 僧珍嵩 僧又宗 僧孝清

僧允岐 僧 □ □ 僧嵩惠 僧善裕

僧 □ □ 僧 □ □ 僧聰惠 僧春逸

□ 舍利臣忠賢

III

이상과 같은 金文의 판독을 통하여 먼저 이 「刹柱本記」가 함께 行數 74、判讀字數 905字로서 기왕에 알려진 塔誌로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새로운 遺文의 수습은 그것만으로도 황룡사 大塔뿐만 아니라 신라 사료로서의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에 그 내용은 대별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第一板에서 황룡사탑의 始建이 사유에서 비롯하였다. 그 建塔의 발원이 善德王代 慈藏法師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慈藏이 入唐하여 圓香禪師<sup>㉔</sup>로부터 「皇龍寺建九層窣堵波、海東諸國渾降汝國」하리 라는 의축에 따라옴과 伊干龍樹와 大匠□濟□非 등이 小匠 200人<sup>㉕</sup>과 더불어 造營한 사실을 들었다.

다음 第二板에서 이 始建畢功의 年月日과 그 높이를 적었는데 「鐵盤已上高七步已下高卅步三尺」이라한 것은 三國遺事에서 「刹柱記云、鐵盤已上高四十二尺。已下一百八十三尺」이라한 것과 정확하게 一致하고 있다. 이어서 「三韓以爲□□君臣安樂至今賴之」라한 것은 이 發願이 統一의 胎動을 배경으로 舉國의 念願을 反映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어서 그후 一百九十□□을 지나 文聖大王 때(839—856)에 이르러 이 大塔이 東北으로 傾斜됨에 國家恐慌하고 三十餘年을 지난에 改構치 못하였던 바 今上(景文王)11年(871)에 이르러 親弟上宰相인 伊干魏弘에 命하여 寺主 惠興 등 道俗의 힘으로 그해 八月十二日에 廢地造新함에 이르렀다.

끝으로 第三板으로 계속되어서는 이때의 舍利藏置의 內容에서 비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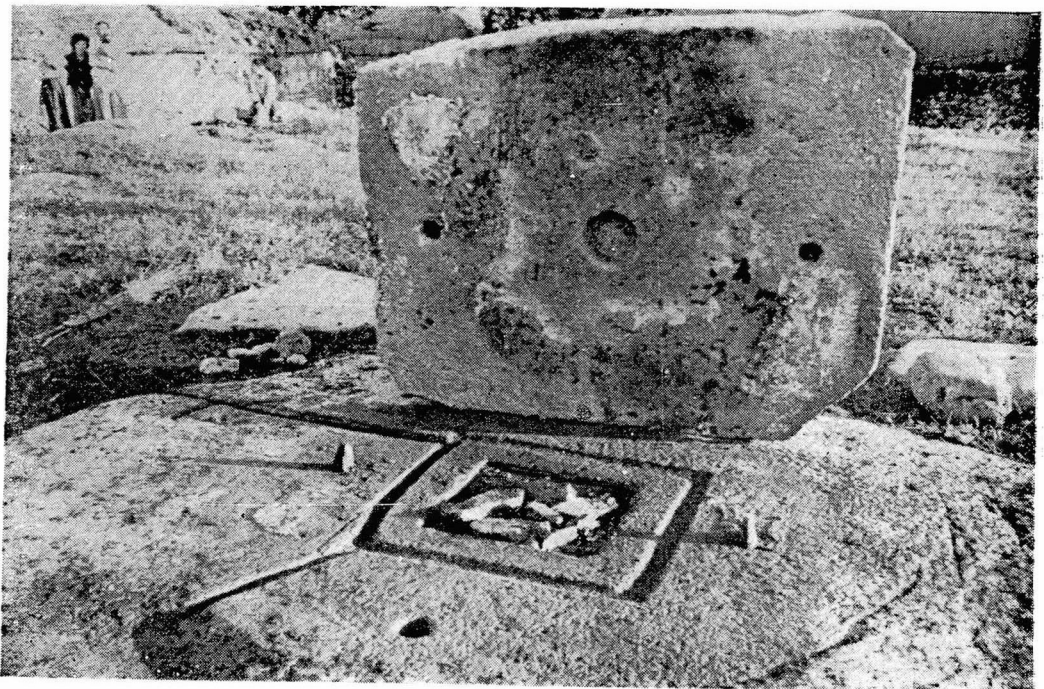
하고 있다. 그리하여 無垢淨經에 따라서 小石塔 九十九軀를 安置하고 每塔마다 舍利一枚 陀羅尼四種 등을 넣었으며 이 같은 舍利一具를 鐵盤之上에 안치함으로써 明年(景文王 12年 壬辰) 七月에 畢功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어서 다시 중요한 기록이 보이고 있다. 그것은 이 때 中心의 利柱는 不動이었으나 「上慮柱木 舍利如何」하여서 그해 十一月에 王이 群僚를 이끌고 現場에 이르러 利柱를 들고 보았다는 것이다. 아마도 始建當初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 柱木舍利는 「礎白之中」에 있어서 金銀高座가 있으며 그 위에 舍利琉璃瓶이 안치되어 있었다고 하였는데 다만 年月 事由記가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同月 25日 依舊還置하고 다시 舍利一百枚와 法舍利二種을 加安하였으며 「始建之源」 및 「改作之故」를 적어 「示萬劫表後迷」라 하였다. 末尾에 「咸通十三年壬辰十一月廿五日記」라 보이고 「姚克一奉」이라 하였는데 이것은 第一板 第一行에 보이는 朴居勿<sup>8</sup>과 더불어 이 利柱本記의 撰者와 書者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金銅塔誌 三枚의 主文 이외에 各板의 裏面에는 이 重削에 관여하였던 道俗의 姓名이 그들의 職名 등과 더불어 같은 手法으로 記刻되어 있다. 그 첫째(第三板 背面)에는 「成典」이라 하였고 第二行에는 「監脩成塔事守兵部令平章事伊干臣金魏弘」이라 하였는데 史上에 알려진 그가 이미 本文에서 본 마와 같이 이 巨役을 主管하였던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으로는 阿干一吉干 大奈麻 大舍 등 十一名이 보이는데 그 중 新金氏<sup>9</sup>가 2人 들어 있어 특히 주목되는 바 처음 보는 皇龍寺成典은 특히 귀중한 文字라 하겠다.

第二板 背面에는 第一板 末行에 보이는 「道監典」의 人名이 列記되고 있는데 前國統僧惠興 이하 僧 14名이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에 이어서 「俗監典」이라 하였으며 「江江鎮都護重阿干臣金堅其」 「執事侍郎阿干臣金八元」의 兩名이 보이고 있다.

第一板 背面에는 前板에 이어서 俗監典으로서 3名이 보이고 있으며 계속하여서 當寺大維那와 維那로서 僧名이 다수 보이고 있다.

이 三枚의 金銅板은 上記와 같이 方形函의 三面을 이루고 장첩으로서



皇龍寺 九層木塔 舍利孔

連結되어 있었으며 다시 前面는 兩枚 門扉로서 마감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塔誌板 三枚와 門扉 二枚의 五枚로서 舍利方函을 구성하였는데 이 金銅函의 內外 各面을 이용하여 大塔重修의 前後事由와 關係된 道俗人名을 자세히 기록하여 柱礎礎白에 넣었던 사실을 알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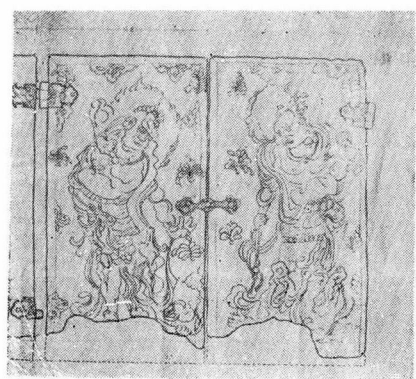
그리하여 이 遺文에서 먼저 史記와 遺事가 전하여 준 始建의 因緣과 塔高等을 다시 새롭게 확인할 수 있는 동시에 合三韓爲一家의 建塔發願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이 塔誌의 主文은 그 始建보다는 景文王代의 重修事實을 소상하게 전하는 곳에 있다. 이에 대하여서는 三國史記 景文王 八、十一、十三各年條⑩에 震塔 改造 및 畢成의 짧은 記事가 계속 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當時의 舍利奉安의 內容과 方式뿐 아니라 마도 始建當初의 柱礎舍利에 관한 기록도 併記되고 있어서 매우 귀중하다. 그리하여 韓國 最大의 木塔에서의 舍利奉安의 位置로서 鐵盤과 礎白의 上下差別에서 時代의 變遷相을 알 수도 있겠다. 아마도 이 같은 金文新例는 古왕의 신라의 金石例가 모두 石塔에서의 發見이었음에 대하여 이 前無한 木塔 新例가 한층 注目된다고 하겠다. 이 같은 새로운 塔銘은 동시에 수습된 그 舍利具의 진모를 밝힘에 있어 또한 유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 塔誌와 같이 장치되었던 舍利具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 장치의 방안과 함께 조사를 기하고자 한다. 지난 날의 混沌 속에서 이와 같은 重要資料가 그나마 收拾된 것은 또한 多幸이라 하겠다. 돌이켜 보전대 新羅 景文王 即位 12年 서기 872年 이 大塔重成의 巨役이 完了된 이후 1100年의 歲月이 지난 今年 1972年에 이르러 이에 직접 관여하였던 한 사람으로서 그 내용의 一部를 發表함에 남다른 感懷를 느끼는 바이다. (1972年 9月 28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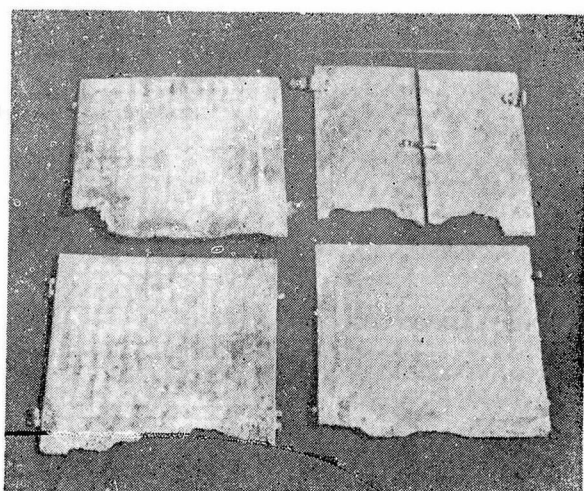
〔附言〕 이 概要는 一九七二年 十月二十八日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主管으로 열린 第二回 東洋學심포지움에서 發表한 것으로 同所의 諒解를 얻어 그대로 실었다.

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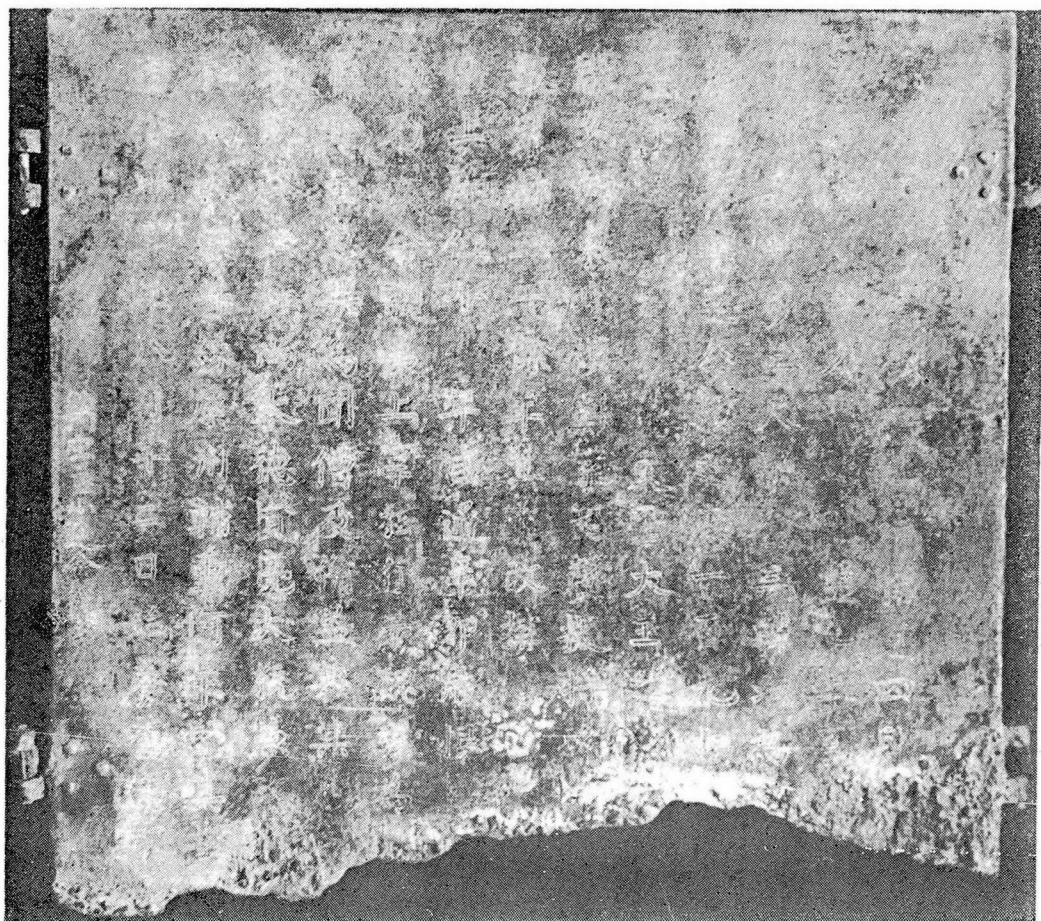
- ① 三國遺事 卷三、皇龍寺九層塔條
- ② 高麗史 列傳에 「昔新羅造九層塔。遂成一統之業。今欲開京建七層塔。西京九層塔。冀借支功除群醜。合三韓爲一家」가 보인다.
- ③ 1922年度 古蹟調査報告書
- ④ 藤島玄治郎 著 「朝鮮建築史論」 第1篇 第3章
- ⑤ 秦弘燮 「皇龍寺塔舍利孔의 調査」(美術資料) 11號 1966年)
- ⑥ 三國遺事 卷三 皇龍寺塔條에 註記가 있어 「寺中記云。於終南山圓香禪師處。受建塔因由」라 보이고 있다.
- ⑦ 同上에 「匠名阿非知。受命而來。經營木石。伊干龍春。一作龍樹幹盤 率小匠二百人」이라 하였다.
- ⑧ 三國史記 卷二十八 百濟本紀六에 「朴居勿撰姚克一書三郎寺碑」라 있다.
- ⑨ 新金氏에 대하여서는 昌原 鳳林寺 眞鏡大師碑에 「大師俗姓新金氏其先任那王族」이라 보인다(朝鮮金石總覽上卷).
- ⑩ 三國史記 卷十一 景文王 本記에 다음과 같이 보인다.  
八年(戊子)夏六月。震皇龍寺塔。  
十一年(辛卯)春正月。王命有司改造皇龍寺塔。  
十三年(癸巳)秋九月。皇龍寺塔成。九層高二十二丈。  
三國遺事 卷三 皇龍寺九層塔條에는 「四十八景文王代戊子六月。第二霹靂。同代第三重修」라 하였다.



金銅板의 四天王像(模寫)



金銅板



金銅板의 銘文